

# 역사동화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

김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I. 연구문제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분석
- IV. 논의 및 제언

## I. 연구문제

역사동화는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위치한 장르이다. 역사동화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변주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이나 다른 문학 장르와 변별된다.

그런데 역사동화의 장르적 특성을 규정하는 ‘역사와 문학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출발한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역사는 사실, 문학은 허구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즉 역사는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동화는 ‘역사적 사실의 허구적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역사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따르면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가의 관점이나 의도가 투영된 언어적 구성물이다. 언어가 실재(reality)를 지시하지 못하므로 역사는 과거를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 이 입장에서 보면 역사에도 일정 부분 허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역사동화 또한 역사의 보존 및 평가에 유용한 텍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역사동화의 장르적 관습에 영향을

미쳤고, 탈역사적 경향의 역사동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역사동화는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다는 전제 하에 철저한 고증에 입각하여 과거를 형상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송언의 『고구려』, 이규희의 『어린 임금의 눈물』, 송기숙의 『이야기 동학농민전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탈역사적 경향의 역사동화는 역사적 고증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형상화한다. 그 예로는 이경순의 『찾아라, 고구려 고분 벽화』, 한석청의 『꿈 그리기』, 김성범의 『꿈꾸는 책, 무익조』, 배우안의 『초정리 편지』 등이 있다. 탈역사적 경향의 역사동화는 ‘팩션(faction)’이라는 문화적 조류를 형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학교육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 준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초등학습독자들이 역사동화를 수용할 때에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초등학습독자들은 역사동화의 수용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역사동화의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오인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육성을 강조하는 아동문학의 특성상 전통적인 역사동화 역시 꾸준히 생산되는 추세이며, 전통적인 역사동화와 탈역사적 경향의 역사동화를 동시에 접해야 하는 현실은 초등학습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문학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습독자들에게 역사동화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학교육에서 역사동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안종운(2010), 김태호(2012) 등이 역사동화의 서사적 특성을 탐색하고 역사동화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sup>1</sup> 이에 본고에서는 초등학습독자들이 역사동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하여 역사동화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역사허구물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살핀 연구로 이종호(2008)가 있지만, 이는 역사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의 역사 이해를 살핀 것이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였다. 통합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각각의 패러다임이 갖는 장점을 차용하여 연구방법을 설계한다. 통합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모두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순차적 QAUN-QUAL 분석 방법’을 취하여 양적 연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하였다(Tashakkor & C. Teddlie, 엄시창 외 역, 2001: 201).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와 면담을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유반응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역사동화의 서사양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역사동화 속 인물이나 사건이 실존했다고 생각하는지’, ‘작가의 역사의식을 인식하고 있는지’, ‘역사동화와 역사서술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을 읽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개발하였고, 문학교육 전공자 3명에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았다. 그리고 문항들을 세종시의 J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명에게 사전 테스트하여 부족한 점들을 수정하였다. 면담은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 중 8명을 ‘의도적 표집’하였고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면담 가이드로 활용하여 설문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하되,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시기

학교	인원수(명)	설문지 수집 시기	면담 시기
대전 E초등학교	63	2013.12.17.	2013.12.17.
경남 양산 S초등학교	56	2013.12.16.	
합계	119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6학년 1학기에 역사를 학습하였으므로 역사와 역사동화를 분별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대도시에서 1개교, 중소도시에서 1개교를 선정하였다. 대전 E초등학교는 아파트촌에 위치한 학교로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며 학업성취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남 양산 S초등학교는 경제적인 면이나 학업 성취 면에서 평균에 속한다. 각 학교에서 2개 학급씩 모두 4개 학급 1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동화 한 편을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에게 설문지를 직접 나누어 주고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즉시 회수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중 무응답으로 일관한 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16개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면담은 대전 E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항인 역사동화의 허구성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들의 답변 비율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역사동화를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술’이라고 응답한 학생 6명(참여자1-6)과 ‘허구적 사건의 형상화’라 응답한 학생 2명(참여자7-8)을 면담하였다.<sup>2</sup> 면담은 학생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멀티미디어실)에서 이루어졌고, 학생 1명당 약 10-15분간 진행되었다. 면담한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녹음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하였다.

2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을 면담 순서에 따라 ‘참여자1’, ‘참여자2’ 등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텍스트로는 손연자의 『마사코의 질문』에 수록된 단편 중 「꽃잎으로 쓴 글자」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사용을 금지당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황을 그린 역사동화이다. 「꽃잎으로 쓴 글자」는 시대적 상황이 사건을 추동하는 작품으로 역사동화의 전형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단편이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서사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교육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도 없다. 단, 이 작품은 초두에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프롤로그가 있는데, 이 프롤로그가 학생들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화(triangulation)와 동료검토(peer examination)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순차적 QAUN-QUAL 분석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수행하였기에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1명, 석사과정생 2명에게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 III. 결과 분석

#### 1. 역사동화의 서사양식에 관한 인식

먼저 초등학습독자들이 역사동화의 서사양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역사동화를 허구서사로 인식하는지 혹은 역사서술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텍스트의 종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다.

표 2. 연구대상텍스트의 서사양식에 대한 반응

문항1: 이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응답의 예
허구서사	98	84.5	이야기, 동화, 소설, 문학작품, 역사소설 등
역사서술	16	13.8	실제 있었던 일,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한 글, 수필 등
기타	2	1.7	꽃잎으로 쓴 글자 등

참여자들의 84.5%가 글의 종류를 ‘이야기’, ‘동화’, ‘소설’, ‘문학작품’ 등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초등학생독자들이 연구대상텍스트를 허구서사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른 문항의 결과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 텍스트를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sup>3</sup> 따라서 참여자들이 역사동화의 장르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야기’, ‘동화’, ‘소설’ 등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의 텍스트를 ‘이야기’ 등의 명칭으로 학습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 3. 연구대상텍스트와 유사한 텍스트에 대한 반응

문항2: 예전에 이 글과 비슷한 글을 읽은 경험이 있나요? 비슷하다고 생각한 글의 제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주세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응답의 예
역사동화	85	73.3	방구아저씨, 마사코의 질문, 죽창을 버리던 날 등
역사서술	6	5.2	백범 김구, 유관순 열사, 사회책에 나온 일제강점기에 관한 글, 독립운동가 관련 글 등
없다	23	19.8	
기타	2	1.7	안네의 일기,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

역사동화의 서사양식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꽃잎으로 쓴 글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제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73.3%의 참여자들

3 III장 2절의 결과 분석을 참조.

이 「꽃잎으로 쓴 글자」와 가장 유사한 텍스트로 다른 역사동화를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77명(66%)이 「방구아저씨」를 가장 유사한 텍스트로 생각하였다. 「방구아저씨」는 「꽃잎으로 쓴 글자」와 함께 『마사코의 질문』에 실린 역사동화텍스트로 현재 2007 국어 교과서 6학년 2학기 1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참여자들이 국어 수업에 「방구아저씨」를 배운 경험이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텍스트를 선정한 근거는 ‘시대적 배경이 같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점이 비슷하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자들이 「꽃잎으로 쓴 글자」를 허구서사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배경이 사건의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텍스트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역사동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2.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역사동화의 허구성은 역사동화를 역사서술과 구분하는 변별점이 된다. 물론 역사서술에도 허구성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reality)를 기호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허구성이다. 역사동화의 허구성은 역사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을 자유롭게 축조하며 과거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추구한다. 역사동화의 타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동화의 허구성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꽃잎으로 쓴 글자」 역시 작가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을 법한 사건들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텍스트이다. 이 작품에서 ‘오현지의 할아버지’나 그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실존했던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다만 작가가 그 시대를 보여 줄 수 있는 전형적 인물과 사건을 허구적으로 창조한 것이다.

**표 4.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한 반응**

문항3: 이 글은 과거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글로 옮긴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도 함께 써 주세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근거의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99	85.3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넘치기 때문에, 오현지의 할아버지에 관한 글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등
상상하여 쓴 글이다.	16	13.8	소설은 글쓴이의 상상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일제강점기에 남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 쓴 것이다 등.
기타	1	0.9	무응답

그렇지만 <표 4>를 보면 85.3%에 이르는 참여자들이 작품 속의 사건을 과거에 실재했던 사건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살펴보면, ‘사회시간에 학습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12명의 참여자는 ‘현실감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역사동화가 과거를 픽션성 있게 ‘공연’함을 인식한 것이다(James Gribble, 나병철 역, 1987: 27). 하지만 「꽃잎으로 쓴 글자」를 실제 있었던 사건의 전사(轉寫)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허구성의 이해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 「꽃잎으로 쓴 글자」의 초두에 오현지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1명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에서 「꽃잎으로 쓴 글자」의 초두에 있는 서술이 참여자의 허구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역사동화 속 등장인물의 실존 여부에 대한 반응**

문항4: 이 글에 나오는 오현지의 할아버지나 오현지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비고
만날 수 있다.	92	79.3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일본에 계셔서 만날 수 없다’ 등의 반응도 긍정으로 처리함.
만날 수 없다.	19	16.4	‘실존인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있을 것이다’ 등도 부정으로 처리함.
모른다	5	4.3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표 5>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꽃잎으로 쓴 글자」의 주인공인 ‘오현지의 할아버지’나 그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역사동화 속 인물들을 실존인물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그런데 참여자의 79.3%가 만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존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반응에서도 초등학교학독자들이 역사동화를 실존했던 세계의 전사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면담과정에서 역사동화뿐 아니라 일반적인 동화의 허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 혹시 최근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동화 있니?

참여자5: 음…. 읽기 교과서에 나온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라는 글이요.

연구자: 그 글은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일까?

참여자5: 사실일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니?

참여자5: 요즘은 다문화 시대이니까. 아빠가 베트남에서 새엄마를 데려 왔는데 딸이 새엄마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 그럼 그 글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날 수도 있을까?

참여자5: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명일 수도 있고….

연구자: 만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어딘가에 살고는 있을까?

참여자5: 네,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5의 경우에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를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 동화 속 인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를 동화 속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가명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답변이 다소 모호하여 ‘캐묻기’를 한 결과, 실존하는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처럼 참여자5는 현실감 있는 허구서사를 ‘실제 있었던 일들’의 기록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 중 6명에게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 4명이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 「나쁜 어린이 표」, 「방구아저씨」 등의 텍스트를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으로 여기고 있었다.

### 3. 작가의 역사의식에 대한 인식

역사동화에는 작가의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역사동화의 작가는 특정한 관점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사 세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역사동화를 읽을 때에는 역사동화가 작가의 역사의식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작가의 입장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표 6.** 작가의 역사의식에 대한 반응

문항5: 글쓰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근거의 예
정확하게 전달한다.	72	62.1	사회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글쓰이가 직접 겪은 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등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	31	26.7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졌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다 등
모른다	9	7.8	
무응답	4	3.4	

하지만 참여자들은 역사동화의 작가가 과거의 사건을 온전하게 전달해 준다고 믿고 있었으며, 감상 과정에서 작가의 역사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62.1%가 역사동화가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고 응답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역사동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이 글의 글쓴이는 누구일까?

참여자2: 다른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 오현지 할아버지의 후손이나 지인들의 조언을 구해 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다른 사람이 오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을까?

참여자2: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연구자: 이 책이 1990년대에 출판되었거든. 그럼 일제강점기하고 60, 70년 정도 이상 차이가 있는데 글쓴이는 어떻게 과거의 일을 알고 쓸 수 있었을까?

참여자2: 후손들한테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일기로 남겨 주면, 후손들이 일기를 바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연구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참여자4: 오현지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현지가 썼다면, 할아버지가 들려줬을 텐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려주진 않았을 거고, 할아버지가 썼으니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 썼을 것 같아요.

연구자: 오현지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을까?

참여자4: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준 피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렸을 때라도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썼을 것 같아요.

연구자: 혹시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참여자4: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겪은 일을 자세히 알려 주고 싶기 때문에 정확하게 썼을 것 같아요.

참여자2는 오현지의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인물이 「꽃잎으로 쓴 글자」를 썼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작가가 오현지의 할아버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이 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서술 과정



에서 작가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참여자4는 「꽃잎으로 쓴 글자」를 오현지의 할아버지가 직접 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초등학습독자들은 역사동화를 실존했던 과거의 기록으로 여길 뿐 아니라 과거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믿었다.

#### 4.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점 인식 및 선호도

문항6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점을 묻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에 대한 반응**

문항6: 이 글과 사회교과서의 역사기록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비고
차이점이 있다.	71	61.2	
차이점이 없다.	45	38.8	

참여자의 38.8%가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이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sup>4</sup> 이러한 결과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역사동화와 역사기록을 구분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교과서의 역사서술은 서사 텍스트(narrative text)와 설명 텍스트(expository text) 중에서 설명 텍스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김한중 · 이영효, 2002: 7-8). 그래서 참여자들은 ‘역사기록’이라는 표현을 설명 텍스트 형식의 역사서술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과거를 기술한다는

4 문항1에서 84.5%의 학생들이 「꽃잎으로 쓴 글자」의 서사양식을 허구서사로 파악하였음을 고려하면, 이중 46%에 가까운 학생들이 허구서사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연구대상텍스트를 ‘동화, 소설, 이야기’로 명명한 것이다.

공통점에 경도되어 서술방식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의 61.2%는 역사동화와 사회교과서의 역사서술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기록은 사실대로 쓴 것이지만 동화는 글쓴이가 생각, 의견, 느낌 등을 바탕으로 꾸며 쓴 것이다.
- 역사기록은 단순히 사실만을 적어 놓은 것이지만 문학작품은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때의 상황도 알 수 있다.
- 사회교과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나타내었고, 문학작품은 유연하고 감성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을 구분한 참여자들은 역사동화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허구적으로 창작된 내용이고, 미시적 차원에서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역사적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것과 달리, 역사서술은 역사를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한 명의 참여자가 위와 같은 특징들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응답은 초등학교학생들의 일부가 직관적 수준에 서나마 역사동화의 특성을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8.**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에 대한 선호도

문항7: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글과 이 글 중 어떤 글을 더 읽고 싶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그렇게 생각한 까닭
역사동화	79	68.1	이해하기 쉽다, 흥미롭다,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현실감 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 수 있다 등
역사기록	21	18.1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정보와 사진자료를 접할 수 있다, 위인들에 대해 알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등

기타 및 무응답	16	13.8	읽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둘 다 읽고 싶다,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어 둘 다 읽고 싶지 않다 등
-------------	----	------	--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동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8.1%, 역사서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8.1%로 나왔다. 역사동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 구체적 현실의 묘사, 높은 흥미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역사서술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때문에 역사동화보다 역사서술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역사동화와 역사서술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연구자: 사회교과서에 있는 역사 관련 글이랑 꽃잎으로 쓴 글자랑 어떤 게 더 재밌어?

참여자8: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글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좀 딱딱해요. 이런 글(역사동화)은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런 딱딱한 글에 비해서 더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이런 글(역사동화)이 더 좋아요.

연구자: (설문지에서) 감정을 움직인다고 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참여자8: 아, 사회시간에 나오는 글은 ‘우리나라가 그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글(역사동화)로 보면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막, 손바닥을 몇 대 맞아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하고, 이런 걸로 봐서 우리 감정 같은 것을 더 움직여서 더 공감되고 그런 것 같아요(괄호: 인용자 서술).

위의 인용은 사회교과서의 역사서술보다 역사동화를 더 선호하는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참여자8은 역사서술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해 주지만 딱딱하다고 평가하였다. 설명 텍스트 형식의 역사서술이 건조한 설명체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것

이다. 그에 비해서 역사동화는 당시에 일어난 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오래 기억에 남고 감정을 움직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참여자8이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9.**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을 읽는 방법의 차이에 대한 반응

문항8: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글과 이 글을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반응	반응 수(명)	비율(%)	비고
차이가 있다	68	58.6	
차이가 없다	36	31.0	
기타 및 무응답	12	10.3	사회교과서는 짧다 등

역사동화와 사회교과서의 역사서술은 허구성이나 서술형식 면에서 그 특성을 달리한다. 역사동화나 역사서술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의 31.0%는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을 읽는 방법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의 58.8%가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교과서는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며 읽고, 이 글은 (감정을) 느끼면서 읽는다.
-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글은 정리된 것을 외우듯이 읽어야 하지만, 이 글은 편안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읽으면 된다.
-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글을 읽을 때에는 중요한 사건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지만,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과 느낀 점을 기록하며 읽어야 한다.
- 사회교과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야기는 지어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사실을 진짜 사실로 알 수도 있다(괄호: 인용자 서술).

이들은 사회교과서의 역사서술은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오랫동안

안 기억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하고, 역사동화는 인상적인 장면을 상상하고 정서적으로 감응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로젠블랫이 독자 반응 이론에서 언급한 원심적(efferent) 읽기 방법과 심미적(aesthetic) 읽기 방법에 상응하는 것이다(Rosenblatt, 김혜리·엄혜영 역, 2008). 그리고 역사서술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므로 그대로 수용해도 되지만, 역사동화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 5. 역사동화의 수용 방향에 대해 교육 받은 경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역사동화의 허구성, 작가의 역사의식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역사동화에 관한 학습 경험 여부를 설문지의 문항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면담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8명은 역사동화의 특성에 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연구자: 국어 시간에 「방구아저씨」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사회교과서를 읽을 때와 동화를 읽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 없니?

참여자4: 그런 것은 없어요.

연구자: 그럼 혹시 『기황후』나 『장옥정』 같은 드라마를 볼 때, 혹시 주변 어른들이 ○○한테 저 드라마가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 준 적 있어?

참여자4: 없어요.

연구자: 혹시 「방구아저씨」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글에 나온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니?

참여자6: 네.

연구자: 뭐라고 말씀해 주셨니?

참여자6: 일제가 탄압을 어느 정도로 했다, 어떻게 광복을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자: 사회교과서를 읽을 때와 동화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니?

참여자6: 없어요.

참여자4는 다양한 경로로 역사허구물을 접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국어시간에 「방구아저씨」가 실려 있었지만 역사동화텍스트로서 「방구아저씨」의 특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에서 역사드라마를 볼 때에도 허구성이나 역사의식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참여자6의 경우에는 「방구아저씨」를 학습할 때에 선생님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텍스트 해석을 위한 배경지식을 설명한 것일 뿐이었다. 역사동화의 허구성이나 역사의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IV. 논의 및 제언

본고의 목적은 역사동화에 대한 초등학습독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9명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그중 8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습독자는 역사동화를 이야기, 동화, 소설 등으로 파악하였지만, 정작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의 85.3%가 역사동화의 사건들을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의 기록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79.3%가 역사동화 속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습독자들에게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이 일반적인 동화도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서사문학의 본질적인 특성인 허구성에 대해서 초등학습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추후에 초등학습독자들의 허구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서사문학의 허구성에 대한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습독자는 역사동화에 작가의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의 62.1%가 역사동화가 과거를 온전히 전달한다고 믿었으며, 26.7%만이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습독자가 역사동화에 내재된 작가의 역사의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7-9학년군의 내용성취기준 문학-(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역사동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습독자가 역사동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의 비판적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습독자 중에 직관적 수준에서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을 감지하는 이들도 있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역사동화와 역사서술의 차이점으로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면담 과정에서도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을 직관적으로나마 이해하는 학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습독자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역사동화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역사동화의 유형에 따라 인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꽃잎으로 쓴 글자」 한 작품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살피는 데 그쳤다.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전통적인 역사동화와 탈역사적 경향의 역사동화를 구분하여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초등학습독자가 역사동화 속의 인물이나 사건이 역사적 상상력의 산물임을 파악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초등학습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습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다보니 허구성에 관한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계되었다. 추후에 초등학습독자의 허구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습독자가 허구의 효과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5</sup>

최근에 초등학습독자는 역사동화, 역사드라마, 역사 만화 등 다양한 역사허구물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역사허구물이 초등학습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문학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역사동화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추후에 역사동화 교육의 의의와 가능성, 구체적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4. 1. 30.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5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지점이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리하고 타당한 비판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문헌

- 김태호(2012), 「역사동화의 서사적 특성과 서사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5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107-133.
- 김한중 · 이영효(2002),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 『역사교육』 81집, 역사교육연구회, pp. 1-48.
- 대중서사장르연구회(2009),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2: 역사허구물』, 이론과실천.
- 대중서사학회(2003),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 서보영(2006), 「역사소설의 역사적 상상력 교육 연구: <임진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중운(2010), 「역사팩션서사의 형상화 과정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중호(2008), 「역사드라마를 통한 초등학교의 역사이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ribble, James, *Literary Education: A revaluation*, 나병철 역(1987),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 Rosenblatt, Louise M.,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김혜리 · 엄혜영 역(2008),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 Tashakkori, A. &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엄시창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 질적 · 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학지사.

## 역사동화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

김태호

이 논문의 목적은 역사동화에 대한 초등학습독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9명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그중 8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습독자는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해 빈약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실존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따라서 역사동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습독자 중에는 역사동화에 작가의 역사의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초등학습독자가 역사동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셋째, 직관적 수준에서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을 감지하는 초등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초등학습독자가 역사동화의 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학교육에서 역사동화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역사동화, 역사동화 교육, 역사허구물, 초등학습독자

## ABSTRACT

# The Perception for the Historical Fairy Tales of Elementary Learned Reader

Kim, Tae-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erception for the historical fairy tales of elementary learned reader. The methods are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irection of historical fairy tale education is proposed as follows. Firstly, elementary learned reader in 6th grade should be taught the fictiveness of the historical fairy tales ; secondly, they should be taught critical reading of the historical fairy tales ; thirdly, they should understand aesthetical characteristics on historical fairy tales. This paper helps to develop the education of historical fairy tale.

**KEYWORDS** Historical fairy tale, Education of Historical fairy tale, Historical fiction, elementary learned reader